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7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회 (1부)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1월 12일 (제724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회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성숙한 사회를 위하여

목회 30주년에 들어서며 나는 성숙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시민사회, 성숙한 정치, 성숙한 노사관계 등, 이는 우리가 늘 꿈꾸고 지향하는 바이다. 인간사회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성숙하지 못한 대응들이 불씨를 키우기 때문 아닌가? 상대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대결적 사고로는 결코 공존공영의 선진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 나의 생각과 의견이 존중 받아야 한다면, 상대의 생각과 의견 역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는 인간사회의 모든 갈등을 미연에 잠재울 수 있는 지혜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유 있는 태도 말이다. 그렇다면 먼저 말이 고을 것이고, 가는 말이 고우니 오는 말 역시 고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어찌 분쟁과 대립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

또한 성숙이라 함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열정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게으르고 수동적인 사람과는 결코 대업을 꿈꿀 수 없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회, 국가, 즉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자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이 가고,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함을 주지 않는가?

나는 우리 교회 교역자, 장로, 직원들에게서도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다. 30세이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도 남을 나이 아닌가.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한다.

2014년 새해, 진정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

지난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였거나 위성 및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본 성도들은 정말 다시 보기 어려운 장면을 보았을 줄 안다. 그날 사회를 맡은 김종일 장로님이야말로 25년 넘게 예배 사회를 맡아오며 목소리 나는 진행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다. 그런데 이날 총 68절에 달하는 신명기 28장 전체를 무려 11분 이상 읽어 내려가는 중, 장로님에게서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곧 혀가 꼬이고 목이 떨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불처럼 토해내시는 신명기 28장의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 모두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토록 듣기

믿는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모든 불순종은 바로 불신앙에서 오며,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이다.

목사님은 송구영신예배와 3일간의 신년 축복성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못해 몸살하시는 하나님의 속 타는 심정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목사님을 보면 늘 꺼지지 않는 불꽃을 연상하고 했지만, 이번 집회 때처럼 온몸으로 불사르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하였다.

“먼저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 14:28)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 냥



2014 신년축복성회(1월 1일~3일, KBS88체육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은 사실 14절까지이고, 이후 나머지 54절은 모두 저주의 끔찍한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목사님께서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2014년 새해, 복 있는 자들이 되자’는 슬로건을 공포하시며, 신명기 28장 전체를 봉독하게 하신 뜻을 깊이 유념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이 어디서 오는가?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문이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시오, 전 우주 질서의 조율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은 존재입니다(요1:12). 이제 단순히 사람의 아들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암탉에게 길러진 독수리가 신분도 모른 채 구구거리고 다니는 것처럼, 악한 마귀에게 속아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자신을 비하하며 가난과 병과 저주의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 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니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하고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요 14:12)고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며, 그 성

빛을 갇는다’ 했습니다. 말이란 씨와 같아서 뿌린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떨어진 씨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그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인생이란 말(言)을 말(馬) 삼아서 달려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새해에는 좋은 말만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복 있는 새해가 밝았다. 듣기만 하면 무엇 하겠냐? 듣는 대로 깨닫고 실천하여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은택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베네수엘라 집회

▶일시: 2014년 1월 14일(화) ~ 23일(목)

▶장소: 카라카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3:27~14:20)

말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올해가 청마(靑馬)의 해라죠? 서양에서는 청마를 행운의 말이라 하고, 동양에서도 청마를 길조로 여겨 특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은 청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남을 살리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타고 옵니다.

2014년,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잘 합시다. 내 운명은 사주팔자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뽑은 실로 자기 몸을 천장 동여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ですよ.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들어보면 분명 그들의 말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말, 희망적인 말과 확실한 어법을 씁니다. 반대로 실패한 자들은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많고, 자기 비하의 말도 많고, 핑계도 많을 뿐더러 애매한 표현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열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 가나안 땅 입성은 불가능하다'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의 열

사람과 누가 성공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화합도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나 단체에서는 분란거리가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대개 말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말에 유의하는 반면,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런 자는 가정에서 당연히 대접 못 받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는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에게 폭언하고 명령조로 말한다면, 당연히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요즘
주머니
에 넣
고



다 넣
수 있는
소형 녹음
기가 있
는데,

그걸 차고 당신의 말을 점검해보십시오. 말이 곧 씨를 점검해보십시오. 말이 곧 씨 수로 땅에 떨어뜨려도 나니까요. 말이란 것이 자고로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즉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감동되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솔직히 제가 좀 개성 있게 생긴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갔을 때 진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청기조칸과 링컨을 섞어놓은 얼굴 같다는 겁니다.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 후로 거울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언젠가 일어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70정도 먹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한 50정도 되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로 인심 좀 쓰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도중에 내려버렸습니다. 아내에게 '퐁퐁하다' 하지 말고, '풍성

하다' 해보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사장 되라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가정에 구름 없는 아침햇살 같은 축복과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기업 간에도, 국가 간에도 말 한 마디 잘못해서 교류가 끊기고, 분쟁이 일어, 심지어 전쟁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영불전쟁이나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간의 전쟁도 거슬러 올라가보면 작은 불씨, 말 한 마디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보 선지자는 "허도 작은 지체로

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 3:5)라고 말

한
것입니
다.

사두엘상 25장을 읽어보세요. 나발은 그저 똥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파도가 물러올 때 모래처럼 말을 온순하게 잘 해서 나중 다윗의 아내까지 된 경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어디 그 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하나는 말을 잘 해서 낙원에 갔고, 하나는 말을 잘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눅23:39~43). 그럼요, 천국과 지옥도 말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겠다고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롬10:10). 말한 마디에 천 년 빛남 탕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란 생각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발의 생각 속에 다윗의 존재가 깔려있고, 나발의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불쑥 나온 겁니다. 병 속에 오랜 지 주스가 들어있으면 오랜지 주스가 나오지 토마토 주스가 나오겠습니까? 병

에 오물을 넣어놔었으니까 오물이 나오는 겁니다. 곧 말이란 생각의 외형이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제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견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고 감동을 일으키는 말을 하라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7~18)라고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말 속에 신앙이, 성숙한 인격이, 가정교육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독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독설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펜으로 죽은 사람이 많고, 그보다 말에 죽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칼은 양날만 있지만, 말은 수전, 수만의 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는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독설을 날릴 때마다 나무판에 못을 하나씩 박은 아내, 그것을 본 남편이 회개하고 그 후로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못을 하나씩 뽑았지요. 그러나 그 나무판에는 여전히 못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설로 인한 상처가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18:14).

여러분, 아고보서 3장에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경건도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으니 좋은 말 하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 첫 단추를 잘 끼는 법은 바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잘합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합렷루아!

말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사람은 부정적인 반면, 두 사람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전자의 10명은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메뚜기는 뛰어야 한 철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라는 회사의 명을 받고 간 두 사람, 한 사람은 "여긴 온통 얼음인데, 냉장고가 팔리겠어요?"라고 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냉장고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한대로 팔리겠는데요?"라고 했습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보냈을 때, '여기는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겠네'는 사람과 '신발 신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고액이다'라고 하는

JD Motors

중고 자동차 매매
(수입자 전문)

임종덕

문의 031-295-7722
010-4020-5791

2014년 새해를 맞아 장로님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노력은 비장의 무기다



중·고등부 부장을 맡은 지 어언 1년이 되어갑니다. 저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과 함께 하니 반세기는 짧게 살아가고 있고, 또 되레 배우고 있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슴에 지혜와 사랑, 용기와 신념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

에 여기 조선의 문신 이이의 이야기를 인용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란 없다. 천재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영예로운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은 남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이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애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하고 물으니, “네, 어머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의 노력에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거둬들일 때까지 농부가 기울인 정성에 따라 그 수확량이 결정되듯, 성공도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씩 무언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2세에 숙부 송재 이우로부터 논어를 배우고 맹자, 중용, 대학 등을 독학하며 과거시험에 세 번씩이나 실패하였으나 23세에는 드디어 장원급제를 하였습니. 29세에 호조좌랑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나 37세에 사직하고 제자교육에 힘쓰다가 45세에 대사간, 호조판서,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 중책을 맡아오면서 동인, 서인 갈등해소에 주력하였고, 전쟁에 대비하여 십만 양병설을 주장하였습니. 청소년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미래 여러번 색깔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지갯빛이나 아

니면 어둠 회색빛이나 맑습니다.

또한 노력은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목사님은 늘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해야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잘라버리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복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력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임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노력은 우리 인생에 숨겨진 비장한 무기입니다. 노력이란 무기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면 밝은 2014년이 당신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서울 중·고등부부장 박한규 장로

축복의 꽃을 피우려면



새로운 2014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신년축복성회를 통하여 올해는 복 있는 자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위해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폭풍우

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우를 잠재게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마8:26). 지금 나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가장 큰 폭풍우를 만나셨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래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실상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지지 말고 폭풍우를 잠재게 하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축복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측은 자를 살리시고, 앓은병이를 일으키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9:23)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 인생길에 어찌 아스팔트 깔린 길만 있었겠습니까? 흙탕물도 지나고, 돌길도 지나셨습니. 그러나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만 굳건히 지킨다면 분명 축복의 꽃

은 활짝 필 것입니다.

대망의 2014년 새해, 우리에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 내린 네 사람과 같은 창조적인 생각과 총회장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일치된다면, 2014년에는 일생일대 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에 속한 지체들도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 그리고 젊은이의 패기로 도전한다면, 절대 불가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낮은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일랑 한데 모아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2013년의 강물에 띄워 보내버리고, 대망의 2014년도는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감을 건넌 으면 뱃속은 버림입니다.

서울 대학부부장 송효양 장로

복 있는 자가 됩시다



JCO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 우리 청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커질 수 있고, 청년의 때는 자유와 열정이 충만하여 자칫하다간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기우(杞憂)였을 뿐, 그간 예수중심의 청년대학생들은 매주 약 300여명이 모여 총회장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이시대 목사님의 주옥같은 성경 강해 말씀들을 들으면서 콩나물 자라나듯 어느새 믿음이 부쩍 커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간식을 준비하시는 장로님들도 육의 양식에 비교

할 수 없는 영의 양식에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 더욱 놀라운 일은 제가 그 젊은이들 속에 함께하며 더 젊어진 제 자신을 그곳에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난 나의 믿음이 충두리케 너희들에게 전수되길 원하고, 내게는 너희들 젊음의 기(氣)가 전해지길 원하여 이렇게 너희들과 호흡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는데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11:9).

이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좇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청년 때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는 지금 씨를 뿌릴 때지 거둬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낭만을 씹으면서 사랑을 갈망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20대는 씨를 뿌리고, 30대는 열매를 키우고, 40대는 열매를 팔 때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라”(전1:6)는 성경말씀이 생각났습니.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믿음, 기다림은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야곱은 20년을, 요셉은 13년을, 다윗도 13년을,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15년을 기다리며 인내하다 세계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다림의 인내를 배워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그리

한 ‘마침내’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중심 청년들이여,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목자를 만났습니.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쟁하여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유명한 교수들이나 경영인들의 가르침보다 실생활에 직결되는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중심 청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이 복 인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특별히 말씀드리고픈 것은, 미래는 꿈꾸는 자가 만드는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은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 마십시오.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젊은이의 기백과 패기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더 붙어 ‘기필코’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만드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박수치며 다가올 것입니다.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청년부부장 김상구 장로



‘복 있는 자가 되시다!’라는 표어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심령을 완전히 비워 절박한 심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공기가 없어 살 수 없고, 태양 없어 살 수 없을 정도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궁즉통(窮即通), 즉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압박강가의 아픈 새벽이 가까울 때까 지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를 다쳤을 때도 기도의 끈, 축복의 끈을 놓지 않았습 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야 말리라, 꼭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하나 님과 싸워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원수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 님 앞에 급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울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 하세요. 자존심 버리고 불쌍히 보이게 기도 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빛도 땅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사가 “너는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랑과 동 정을 가졌어.”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절

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세 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 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 기를 하자 그의 형제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하며 물 없는 웅덩 이에 죽이려고 처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 없는 웅덩이가 애굽으로 유학 가는 지 름길인 줄 요셉인을 알았겠습니까? 사도 행전 27장에 바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로 압송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 님의 눈으로 보면 크루즈 선에 호화로운 음식과 호위병인 것입니다. 벨리데 섬에 서 그 많은 사람들 중 뱀에게 물리는 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그 섬을 복음화 하는 멋진 작품을 연출했습 니다. 짧은 날 애굽 왕자의 황금줄 대신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어 양치기 지팡이 로 반석 위의 물을 내고 홍해를 갈랐습니 다. 이 모든 것이 다 절박한 기도에서, 절 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산으로 내려와 1년 동안 부흥과 시험 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 고 응답하시며, 서서히 부흥의 100°C를 향해 달구고 계심을 느낍니다. 가장 맛있 는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없이 못 살고, 기 도 없인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삭이라도 굶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룻의 절박함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보아스를 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멸시편대를 받아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고, 에스더도 고아

라는 절박감이 그를 왕비의 자리에 앉혔 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우리 를 절박하게 만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박함으로 심 장이 끊어야 합니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찾아와 변한다’는 뜻입니다. 물이 100°C가 되어서야 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글만리’라는 책을 쓴 조정래 씨는 2010년 세계경제력 2위(G2)인 중국이 2016년에는 G1으로 성장한다고 예측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중국으로 통하는 대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된 후 어마어마한 복이 한국 을 통한다는 말입니다. 바야흐로 한민족 최대의 복을 받을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어는 예루살 렘 교단을 향한 복의 선포이고, 복 있는 자가 되어 복 받으라는 강력한 축복의 메 시지인 동시에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 다. 아무리 한국이 복의 통로가 되고, 선 진대국으로 발돋움해도, 절박한 심정으 로 준비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은 1%의 가진 자들의 향연에 머물 것이란 예측입니다.

새해 부흥의 절박함으로, 복을 받고야 말 리라는 절박함으로 시작해봅시다. 당신 은 범인이 아닌, 영재가 아닌, 수재가 아 닌, 하늘이 낸 천재라는 믿음으로 2014 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일생일대 최대 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예수중 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

마산 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Q&A

Q: 성경 공부를 하려 다닌다는 집사님 한분이 찾아오셔서 모든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13:34)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상징이나 비유로 풀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 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시고 신실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 학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 는 어려운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 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중에서도 일 반 대중이 사용하는 가장 쉬운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 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비밀’이나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 기 형태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비유 풀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 을 빼앗은 후에 자신들의 주장을 심 어놓기 위한 전형적인 이단들의 악한 전략입니다. ‘구원’은 성경을 아는 지식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 다. 깨어서 늘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 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법

드디어 2014년이 시작되었다. 해마다 1 월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다짐을 하곤 한다. 이번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축복성회를 통해서도 중요한 계획 을 세울 수 있겠다. 지난해에는 후회하 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면, 2014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총회장 목사 님의 신년 메시지처럼, 시편 1편의 말씀 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은 항상 복 받는 자리에만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 받 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민 하다가, 지난 2013년 마지막 주일에배 시간의 소중했던 기억이 생각나서 그 특 별한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른 아침, 2부 예배 에 참석했다. 그 날의 예배는 생각지 도 않은 총회장 목사님의 인도로 아주 은혜로웠는데, 그 예배 시간의 경험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 단한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날, 맨 뒤쪽에 자리를 잡았던 나는 사 도신경을 외우고 착석하면서 이시대 목 사님 외 여러 목사님들이 뒤편에 앉아

계심을 보았다. 보통 때면, 예배 중반에 한두 번쯤은 졸기 마련인데, 목 뒤로 느껴지는 목사님들의 온기로 도저히 졸수 가 없었다. 그러다가 예배에 완전히 집 중을 하게 되었고, 지난 한 해의 영성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귀가할 수 있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 를 많이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싶으면, 철야 예배를 열 심히 나가야 한다. 복 있는 장소에서 복 있는 사람과 머물러야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죽이려면 사울을 피해 다윗은 라 마나못으로 피신을 한다. 그 곳은 선지 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는 곳이었다. 사 울이 보낸 전령들은 라마나못에서 모두 예언을 했었다. 뒤따라 간 사울 역시 예 언을 하였다(삼상19:19-24). 그로 인해 다윗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악령 에 쫓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라 마나못에서는 성스러운 예언을 행하며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다.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에 머물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

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혔던 옥을 지키 던 간수는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자 자결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결국 온가족이 세례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행 16:25-34).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울 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하나님 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더 사랑 받고 더 축복 받 는 2014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힘써 귀를 기울여야 한 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 사님, 장로, 권사님들과 여러 교인들의 주변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구제에 힘쓰 며,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면서 복 있는 자리와 복 있는 장소에서 멀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2014년 은 복에 복을 더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 길 기원해본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여보게!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아인과

한걸음의 역량이 쌓여

만민을 이루고

만민을의 몸가운데 모여

온마귀를 이루듯

자고로 노력하는 자를

따를수없는 법

예사외신을 다하면

영광된 날이 있나니

朋友